

보도자료

문의  
동향분석실(거시경제 전망)  
(02) 3299-3101  
주력기간산업실  
(산업별 전망)  
(02) 3299-3249

## 2005년 산업경제전망

2004. 12

산 업 연 구 원

## 차 례

|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<요약> .....            | i  |
| I. 거시경제 전망 .....      | 1  |
| 1.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 ..... | 1  |
| 2. 주요 대외변수 전망 .....   | 3  |
| (1) 국제유가 .....        | 3  |
| (2) 환율 .....          | 4  |
| (3) 주요국 경기 .....      | 6  |
| 3. 국내경제 전망 .....      | 7  |
| (1) 개요 .....          | 7  |
| (2) 민간소비 .....        | 8  |
| (3) 투자 .....          | 9  |
| (4) 수출입 .....         | 9  |
| II. 산업별 전망 .....      | 11 |
| 1. 2004년 동향 .....     | 11 |
| 2. 2005년 전망 .....     | 12 |
| 3. 업종별 전망 요약 .....    | 16 |

## <요 약>

### I. 거시경제 전망

‘05년 성장률은 ‘04년 보다 낮아지나 체감경기는 개선 예상

-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 예상치인 4.9% 보다 약간 낮은 4.3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  -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  -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.
-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  -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.

<표 1> 주요 거시지표 전망

단위 : 전년동기대비 %, 억달러

|         | 2003   | 2004   |        | 2005   |     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연 간    | 상반기    | 하반기    | 연 간    | 상반기    | 하반기    | 연 간    |
| 실질GDP   | 3.0    | 5.4    | 4.5    | 4.9    | 4.2    | 4.5    | 4.3    |
| 민간소비    | -1.4   | -1.0   | -0.7   | -0.8   | 1.9    | 3.8    | 2.8    |
| 총고정자본형성 | 3.6    | 3.3    | 2.8    | 3.0    | 4.3    | 5.7    | 5.0    |
| 설비투자    | -1.5   | 3.0    | 6.0    | 4.5    | 6.2    | 9.2    | 7.7    |
| 건설투자    | 7.6    | 3.9    | 1.9    | 2.8    | 2.6    | 3.5    | 3.1    |
| 수 출     | 1,938  | 1,232  | 1,302  | 2,534  | 1,358  | 1,402  | 2,760  |
| (증가율)   | (19.3) | (38.3) | (24.3) | (30.7) | (10.2) | (7.7)  | (8.9)  |
| 수 입     | 1,788  | 1,080  | 1,161  | 2,241  | 1,236  | 1,287  | 2,523  |
| (증가율)   | (17.6) | (25.7) | (24.9) | (25.3) | (14.4) | (10.9) | (12.6) |
| 수출입 차   | 150    | 152    | 141    | 293    | 122    | 115    | 237    |

주 : 하단의 수출입은 통관 기준.

### 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

- 2004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,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.
  -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.
  -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, 원/달러 환율도 1,0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조만간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.
  -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임.

###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전망

- 2004년 상반기에 1.0%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으로 0.8% 감소할 전망이다.
  -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내년 1/4분기까지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-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  - 2005년의 소비증가율은 상반기 1.9%, 하반기 3.8%, 연간 2.8%로 예상

###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 예상

- 2004년 상반기 중 3.0%의 증가에 그친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는 6.0%로 증가율이 높아져 연간 전체로 4.5% 증가할 전망이다.

- 2005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7.7%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-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2004년 상반기에 3.9%의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증가율이 1.9%로 낮아져 연간 전체로는 2.8%의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.
-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효과가 예상되어 건설투자는 2004년과 비슷한 3.1%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#### **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조한 신장세 예상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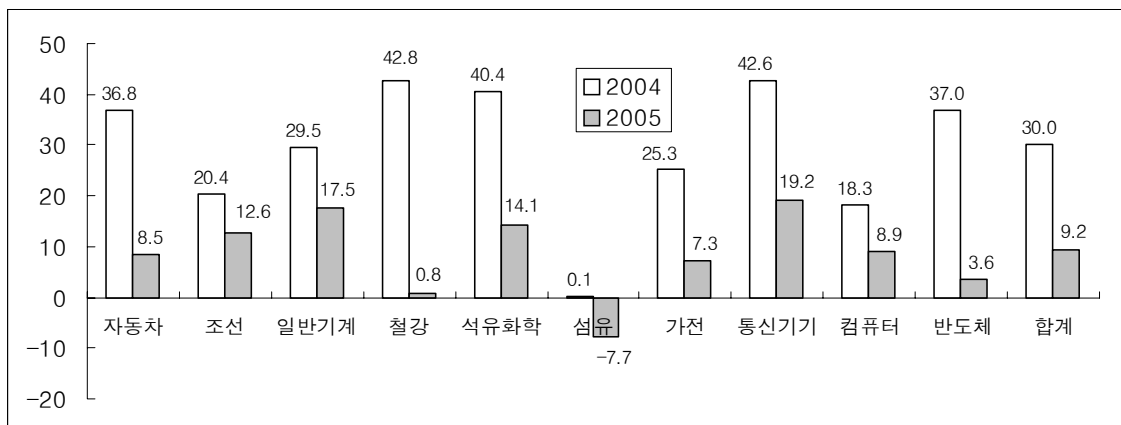
- 금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와 대중국 수출 호조, IT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30.7% 증가한 2,5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.
-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의 15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운 2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.
- 2005년 중 수출증가율은 2004년의 수출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, IT 제품의 가격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8.9%로 낮아질 전망이다.
- 수입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12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.

## II. 산업별 전망

### □ 내수는 다소 회복되지만 수출증가세 둔화로 산업성장세는 둔화

- 2004년 달러 금액기준으로 30%나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업종의 수출증가율이 2005년에는 9.2%에 머물 것으로 전망
  - 수출은 통신기기 한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기준으로 전 업종이 한 자리 수 증가율 내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, 달러 금액기준으로도 조선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통신기기 등만이 두 자리 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
  - 특히 섬유는 2005년에 미국, EU,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로 수출이 감소되겠고, 제품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철강의 수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서 머물 것으로 전망
  - 그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수출도 일본 업체들의 본격생산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

<그림 1> 주요업종의 수출증가율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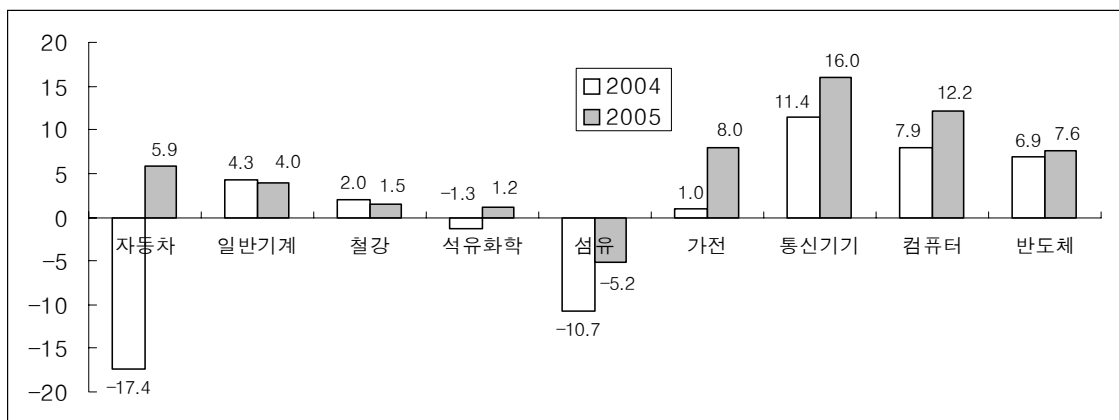


주 : 달러기준 명목금액 증가율

- 한편, 내수는 자동차,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띠 것으로 예상되나,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

-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, 신제품의 출시, 위성 DMB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에 따라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는 200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
- 한편,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, 철강,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

<그림 2> 주요업종의 내수 증가율 전망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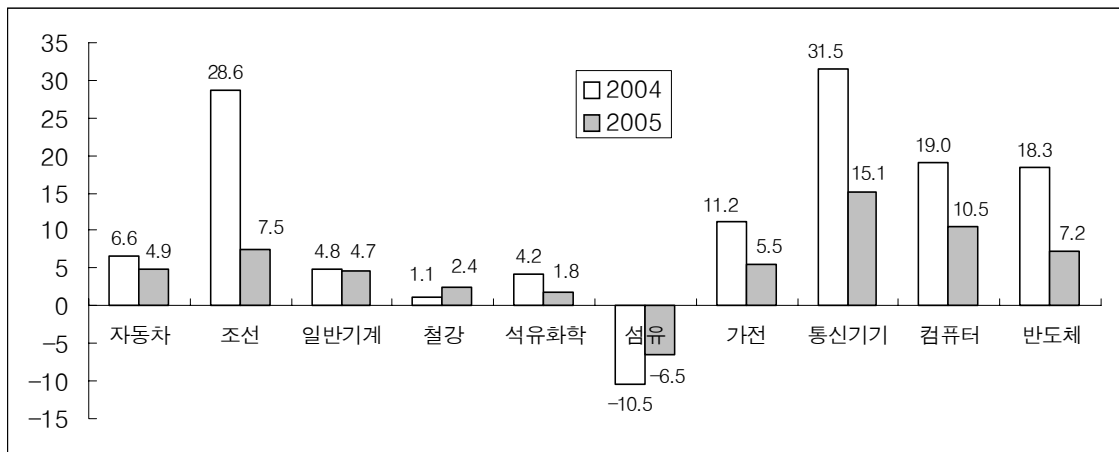
주 : 실질기준임.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.

#### □ 내년에도 IT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
- 2004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,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%를 상회할 전망이고, 특히 통신기기는 15.1%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
- 컴퓨터, 가전,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,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은데 기인하며,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 때문
-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겠지만, 7%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
- 한편, 자동차나 일반기계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,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% 미만으로 머물 것으로 예상
- 철강,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,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%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,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<그림 3> 주요 업종의 생산증가율 전망



주 : 실질기준임.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임.

#### □ 원화절상으로 주력산업 대부분 채산성 악화 우려

-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러표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.
  - 특히, IT제조업의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채산성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.
- 한편, 철강 및 석유화학은 제철원료나 원유를 해외에서 거의 전량 구매하므로 원화표시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음.
  - IT제조업 중 수입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도 채산성 악화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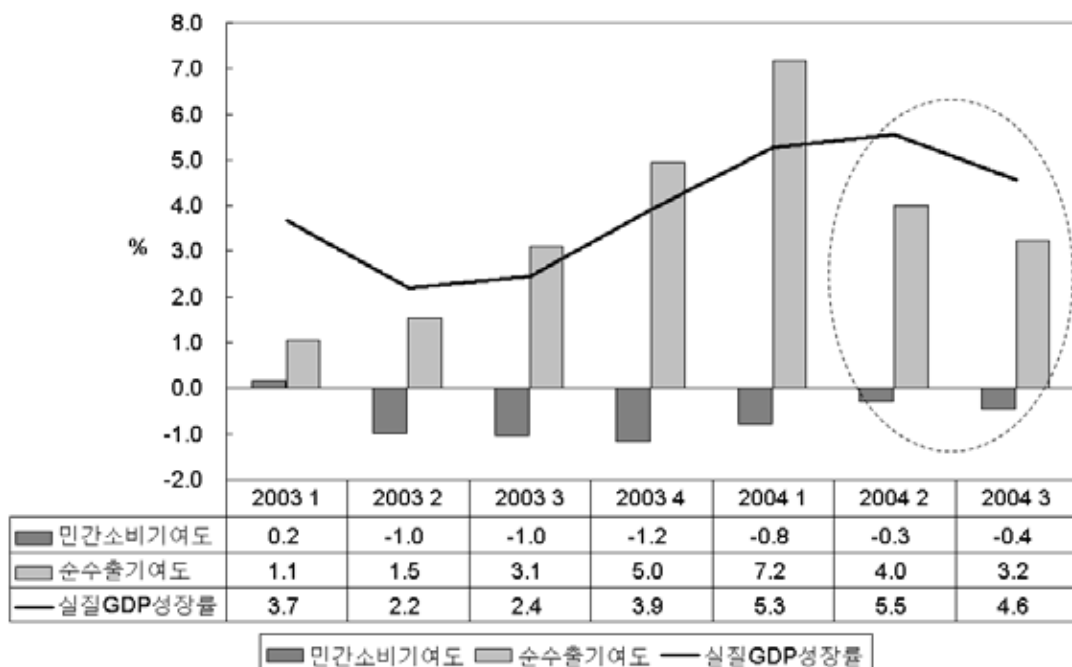
# I. 거시경제 전망

## 1. 실물경제 모습과 방향성

###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

- 최근 국내경제는 내수부문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대외부문의 주도에 의한 성장도 약화되고 있는 모습임.
- 국민계정 상으로 민간소비의 기여도가 여전히 성장세를 잠식하는 가운데 순수출의 기여도가 하락 조짐을 보이고 있어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음(<그림 1> 참조).
- 사상 최대의 호황을 보이면서 성장을 주도해 온 수출부문이 침체된 내수부문을 견인하지 못하고 하강하고 있음은 향후 내수의 자생적 회복이 성장의 관건이 될 것임을 시사함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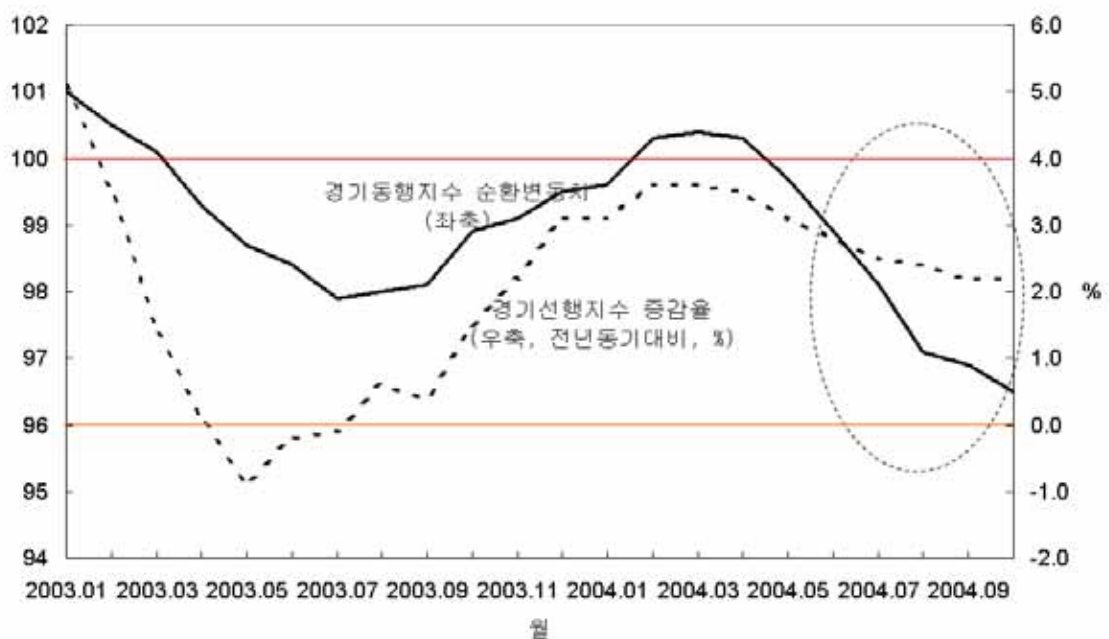
<그림 1> 실질GDP 성장률 추이



자료: 한국은행

- 경기종합지수로 볼 때도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가 하락하는 가운데 경기선행지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음(<그림 2> 참조).
  - 경기동행지수의 순환변동치는 금년 3월에 정점에 도달한 후 100 이하로 빠르게 하락하고 있고 경기선행지수의 증가율 역시 비슷한 시기를 전후로 둔화되고 있음.
- 향후 실물경제의 향방은 민간소비를 중심으로 한 내수의 회복이 수출의 둔화를 어느 정도 보완해 주느냐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음.
  - 2004년 중 유례없는 호황을 보인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고유가 기조의 지속 및 IT산업 경기의 둔화로 인해 다소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원화 환율의 하락도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수출 둔화는 불가피할 것임.
  - 따라서, 6분기 연속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가 저점을 벗어나 증가세로 돌아서고 설비투자가 본격적인 회복을 보이는 시기가 경기국면이 반전되는 중대한 고비가 될 것임.

<그림 2> 경기동행지수 순환변동치와 경기선행지수 증가율 추이



자료 : 통계청.

## 2. 주요 대외변수 전망

### (1) 국제유가

#### 30달러 초반에서 안정될 전망

- 2005년 중 국제유가는 그 동안 유가 급등의 원인이 된 수급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되어 급락세로의 반전은 기대하기 힘들나 적어도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됨.
  - 2005년 중에는 세계경제 성장세의 둔화가 예상되어 원유 수요의 감소가 예상됨.
  - 산유국들이 2004년 들어서만 두 차례에 걸친 증산에 나서면서 유가 안정화를 위해 일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유가의 지나친 상승방지를 위해 생산능력 확충과 산유량 조정에 협조할 가능성이 큼.
  - 2004년 중 일시적인 공급교란요인(러시아 유코스 사태, 미국의 허리케인 여파, 나이지리아 파업 등)에 의해 발생한 시장의 불안심리가 불식될 것으로 보임.
  - 중국의 원유수요 급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유가가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으면서 유가 급등에 편승한 투기수요도 약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2005년 중 국제유가(두바이유 기준) 전망을 30달러 중반 아래에서 안정되는 기준 시나리오와 다시 상승세를 지속하는 악화 시나리오로 나누어 볼 때 전자의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됨.(<표 1> 참조)
  - 기준 시나리오는 현재의 유가수준이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올해를 피크로 2005년에는 다소 낮아질 것이라는 견해임(전망의 기준이 되는 시나리오).
  - 악화 시나리오는 수급불안이 지속되어 현재의 고유가 기조가 해소되지 않는 가운데 추가 상승의 가능성이 크다는 견해임.

<표 1> 시나리오별 국제원유가 전망(두바이유 기준)

단위 : 연평균 달러/배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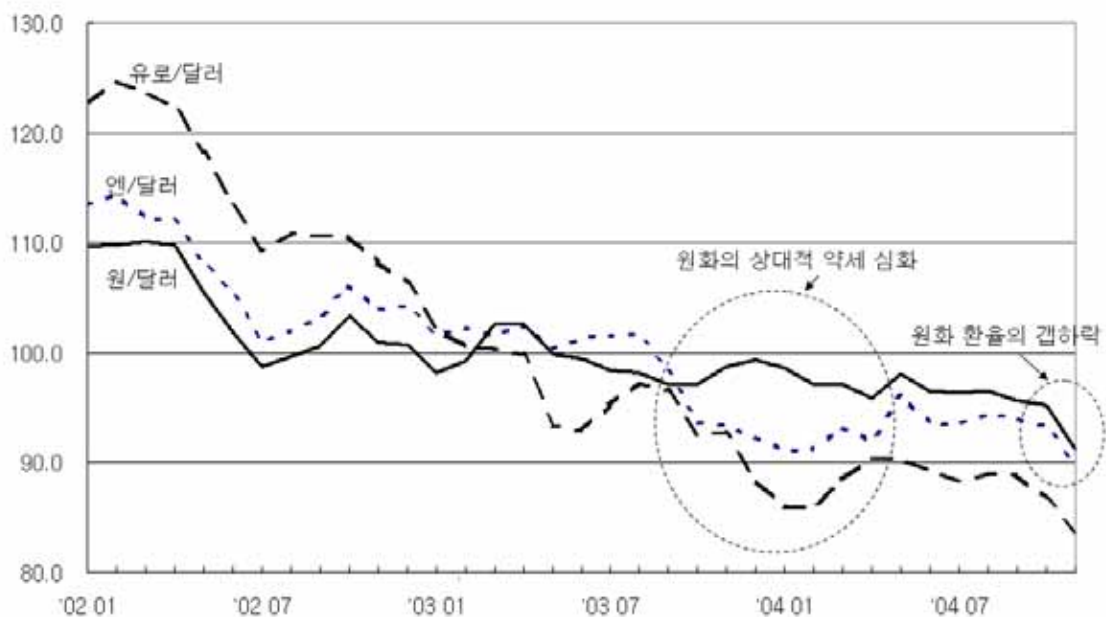
|                     | 2003년 | 2004년            | 2005년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기준 시나리오<br>(전망의 기준) | 26.8  | 34<br>(26.9% 상승) | 33<br>(2.9% 하락)  |
| 악화 시나리오             |       | 35<br>(30.6% 상승) | 40<br>(14.3% 상승) |

## (2) 환율

### 2005년 중 연평균 1,035원 예상

- 최근 원/달러 환율은 1,100원/달러를 하향돌파한 이후 1,050원 마저 붕괴되어 외환위기 이후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음.
- 4/4분기 들어 글로벌 달러 약세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환율 하락 방어에 한계를 감지한 정부의 시장개입 자제로 누적된 갭하락 압력이 분출됨.(<그림 3> 참조)

<그림 3> 원, 엔, 유로화의 대미 달러 환율 추이  
(‘02.1월 ~ ’04.11월 기간 중 각 통화의 대미 달러 평균 환율=100)



- 향후 원화 환율은 최근의 과도한 하락에 따른 조정이 예상되기는 하나 상승요인 보다는 하락요인이 강하여 추가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.
- 제2기 미 부시행정부의 감세를 통한 경기회복 지속으로 재정·무역수지 적자의 해소가 불투명해 짐에 따라 무역적자 감축을 위해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에 대한 글로벌 달러 약세를 지속적으로 유도할 가능성
- 고유가 등으로 미국 경제의 소프트패치(soft patch)가 실패하고 경기둔화가 예상보다 장기화되어 미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자제하게 되면 달러 약세가 지속될 가능성
- 최근 중국의 금리 인상에 이어 내년 중 위안화 절상이 예상됨에 따라 원화 역시 동반 강세를 보일 가능성(위안화의 절상 폭은 6% 내외가 될 것이라는 견해가 유력)
- 추세적인 환율 하락은 불가피하지만 최근 원화 환율의 과도한 하락(undershooting)에 따른 반작용과 수출신장세 둔화에 따라 어느 정도 하방경직성도 기대
- 2005년의 원/달러 환율은 1,000원대 초반에서 저점에 도달한 후 조정을 보이면서 다소 안정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- 2005년 중 원/달러 환율은 평균 1,035원으로 추정되어 9.9% 추가 하락할 전망이다.
- 엔화 역시 달러화에 대하여 강세를 지속하여 5.4% 추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/엔 환율은 2005년 중 100엔당 1,020원을 기록할 전망이다.

<표 2> 환율 전망(기간 평균)

|        | 2004  |       |       | 2005  |       |       | 전년대비<br>변화율(%) |
|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|
|        | 상반기   | 하반기   | 연간    | 상반기   | 하반기   | 연간    |                |
| 원/달러   | 1,167 | 1,132 | 1,149 | 1,030 | 1,040 | 1,035 | -9.92          |
| 엔/달러   | 108.5 | 106.0 | 107.3 | 101.0 | 102.0 | 101.5 | -5.41          |
| 원/100엔 | 1,077 | 1,068 | 1,071 | 1,020 | 1,013 | 1,020 | -4.76          |

### (3) 주요국 경기

#### 2005년의 성장세는 2004년 보다 다소 약화 예상

- 최근 들어 세계경제는 2003년 하반기 이후 지속되던 강한 상승세가 둔화되는 모습임.
  - 세계경제 회복을 견인하는 미국의 성장세 둔화가 뚜렷  
미국 성장률(전년동기대비): 5.0%(2004. 1/4)→3.9%(2004. 3/4)
  - 장기간의 경기침체에서 회복을 보이던 일본의 성장세도 둔화 조짐  
일본성장률(전년동기대비): 5.9%(2003. 1/4)→4.2%(2004. 2/4)
  - 유로경제는 여전히 1~2%의 저성장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
  - 중국경제는 9%대 고성장을 지속하는 가운데 경기과열이 진정기미를 보이면서 연착륙을 시도하는 모습
- 2005년 중 주요국 경제는 2004년의 성장세가 이어지지 못하고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.
  - 미국: 4.3%→3.5% 내외, 일본: 4.4%→2% 내외, 유로: 2.0%→2% 내외,
  - 중국: 9.0%→7~8%

<표 3> 주요 예측기관의 세계경제 전망

단위 : %

|                   | 2003년 |     |     |     | 2004년 |     |     |     | 2005년 |     |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|-----|-----|
|                   | IMF   | WB  | EIU | OEF | IMF   | WB  | EIU | OEF | IMF   | WB  | EIU | OEF |
| 전세계               | 3.9   | 3.9 | 3.9 | 3.8 | 5.0   | 4.9 | 5.0 | 5.1 | 4.3   | 4.2 | 4.2 | 4.4 |
| OECD              | 2.1   | 2.0 | 2.1 | 2.0 | 3.6   | 3.5 | 3.6 | 3.5 | 2.9   | 2.6 | 2.7 | 2.7 |
| (미 국)             | 3.0   |     |     |     | 4.3   | 4.3 | 4.3 | 4.4 | 3.5   | 3.2 | 3.1 | 3.7 |
| (일 본)             | 2.5   |     |     |     | 4.4   | 4.3 | 4.2 | 4.1 | 2.3   | 1.8 | 1.8 | 2.0 |
| (유 로)             | 0.5   |     |     |     | 2.2   | 1.8 | 1.9 | 1.8 | 2.2   | 2.1 | 2.2 | 1.7 |
| 아시아 <sup>1)</sup> | 7.7   | 7.8 | 5.8 | -   | 7.6   | 7.9 | 6.6 | -   | 6.9   | 7.0 | 6.0 | -   |
| (중 국)             | 9.3   |     |     |     | 9.0   | 9.2 | 8.9 | 9.2 | 7.5   | 7.8 | 8.1 | 8.1 |

자료: IMF, World Bank(WB), Economic Intelligence Unit(EIU),  
Oxford Economic Forecasting(OEF)

주: 1) 기관별로 포함되는 국가가 상이

- 세계경제의 바로미터인 미국 금리는 적정 수준(3-4%)까지 단계적인 인상이 이루어진다면 미국경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.
- 미 연준이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성장세 둔화가 예상보다 커서 소프트웨어 패치가 어려울 경우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

### 3. 국내경제 전망

#### (1) 개요

**‘05년 성장률은 ‘04년 보다 낮아지나 체감경기는 개선 예상**

- 내년도 성장률은 금년 예상치인 4.9% 보다 약간 낮은 4.3%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.
- 순수출의 성장기여도는 대폭 낮아지는 대신 내수의 성장기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민간소비와 투자의 회복이 기대되나 순수출의 기여도 하락을 만회할 정도는 아닐 것으로 보임.
-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한국형 뉴딜정책의 실시가 본격화되면 내년 하반기 이후 내수성장세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- 경기부양정책이 가시화됨에 따라 소비와 투자는 연중에 걸쳐 서서히 회복세가 가속화되어 체감경기는 다소 나아질 전망이다.

**경제적 불확실성의 해소가 내수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**

- 2004년에는 경제적 불확실성의 증폭에 따른 경제주체들의 경제적 심리 위축이 소비와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, 2005년 중에는 이 같은 불확실성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임.
- 정부의 뉴딜정책 추진으로 경기부양책을 둘러싼 논란이 불식됨에 따라 정책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됨.

- 국제유가가 하락세로 반전되어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, 원/달러 환율도 1,000원대에 근접함에 따라 하방경직성이 강해져 조만간 불안감이 해소될 것으로 보임.
- 장기 소비침체의 한 원인인 가계의 과잉채무부담이 더 이상 크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계들의 소비심리 위축이 다소나마 완화될 것으로 보임.

## (2) 민간소비

###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전망

- 2004년 상반기에 1.0% 감소를 보인 민간소비는 하반기에도 반전을 기대하기 어려워 연간으로 0.8% 감소할 전망이다.
- 최근의 소비선행지표 움직임에 비추어 내년 1/4분기까지 민간소비의 가시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.

<표 4> 주요 거시지표 전망

단위 : 전년동기대비 %, 억달러

|         | 2003   | 2004   |        |        | 2005   |        |        |
|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        | 연 간    | 상반기    | 하반기    | 연 간    | 상반기    | 하반기    | 연 간    |
| 실질GDP   | 3.0    | 5.4    | 4.5    | 4.9    | 4.2    | 4.5    | 4.3    |
| 민간소비    | -1.4   | -1.0   | -0.7   | -0.8   | 1.9    | 3.8    | 2.8    |
| 총고정자본형성 | 3.6    | 3.3    | 2.8    | 3.0    | 4.3    | 5.7    | 5.0    |
| 설비투자    | -1.5   | 3.0    | 6.0    | 4.5    | 6.2    | 9.2    | 7.7    |
| 건설투자    | 7.6    | 3.9    | 1.9    | 2.8    | 2.6    | 3.5    | 3.1    |
| 수 출     | 1,938  | 1,232  | 1,302  | 2,534  | 1,358  | 1,402  | 2,760  |
| (증가율)   | (19.3) | (38.3) | (24.3) | (30.7) | (10.2) | (7.7)  | (8.9)  |
| 수 입     | 1,788  | 1,080  | 1,161  | 2,241  | 1,236  | 1,287  | 2,523  |
| (증가율)   | (17.6) | (25.7) | (24.9) | (25.3) | (14.4) | (10.9) | (12.6) |
| 수출입 차   | 150    | 152    | 141    | 293    | 122    | 115    | 237    |

주 : 하단의 수출입은 통관 기준.

- 소비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계부채 등의 구조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것으로 보이는 2005년 하반기부터 소비회복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.
- 2005년의 소비증가율은 상반기 1.9%, 하반기 3.8%, 연간 2.8%로 예상

### (3) 투자

#### 건설투자는 저조하나 설비투자는 건실한 증가 예상

- 2004년 상반기 중 3.0%의 증가에 그친 설비투자는 하반기에는 6.0%로 증가율이 높아져 연간 전체로 4.5% 증가할 전망이다.
- 2005년에는 민간소비의 회복에 힘입어 내수경기 상승 기대감이 높아짐에 따라 설비투자도 비교적 높은 7.7%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.
- 소비회복의 진전에 따라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증가율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.
- 2004년 상반기에 3.9%의 증가에 그친 건설투자는 하반기에도 부동산 경기침체의 지속으로 증가율이 1.9%로 낮아져 연간 전체로는 2.8%의 증가에 머물 전망이다.
- 2005년에도 부동산 경기는 부진한 양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나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의한 효과가 예상되어 건설투자는 2004년과 비슷한 3.1% 정도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.

### (4) 수출입

#### 수출은 기저효과로 증가율은 낮아지나 견조한 신장세 예상

- 금년에 성장을 주도했던 수출은 세계경제의 고성장세와 대중국 수출 호조, IT제품 등 주력제품의 가격상승에 힘입어 전년대비 30.7% 증가한 2,534억 달러를 기록할 전망이다.

-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작년의 150억 달러의 두 배 가까운 293억 달러에 달할 전망이다.
- 2005년 중 수출증가율은 2004년의 수출 급등에 따른 기저효과와 더불어 세계경기의 성장세 둔화, IT 제품의 가격 약세 및 원화 강세 등으로 인해 8.9%로 낮아질 전망이다.
- 수입은 원화 강세와 고유가 기조 지속 등으로 12.6%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무역흑자 규모는 2004년에 비해 다소 줄어든 23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보임.

## II. 산업별 전망

### 1. 2004년 동향

#### □ 주력업종의 수출급증이 산업성장을 주도

- 2003년에 이어 2004년에도 소비 및 투자심리 위축이 지속되면서 대부분의 주력업종에서 큰 폭의 내수감소가 이루어지거나 정체를 면치 못한 반면, 수출은 큰 폭으로 증가하여 산업생산의 증가를 견인
  - 자동차, 섬유 등은 전년 대비 내수가 2년 연속 10% 이상 큰 폭으로 감소했으며, 석유화학도 감소세를 면치 못했고, 조선, 일반기계, 철강, 가전 등의 내수 증가세도 3%를 넘지 못하는 부진을 보였음.
  - 반면, 섬유를 제외한 전 업종에서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했고, 특히 자동차, 조선, 일반기계, 가전, 통신기기, 반도체 등은 20%를 상회하는 수출증가율을 기록

#### □ 여전히 높은 성장률을 보인 IT제조업

- 2004년에도 IT제조업이 높은 수출증가율과 안정적인 내수증가세에 힘입어 성장을 주도하였음.
  -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, 반도체 등 IT제조업 모두 두 자리 증가율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통신기기는 30%를 상회하는 증가율을 기록
  - 내수비중이 매우 낮은 조선산업은 높은 수출증가율의 영향으로 생산도 28.6%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
  - 자동차는 17.4%의 내수감소에도 불구하고, 높은 수출증가세로 6.6%의 안정적인 생산증가세를 유지

## 2. 2005년 전망

### □ 수출증가세 둔화와 내수 회복지연으로 산업성장세 둔화

- 2004년 달러 금액기준으로 30%나 증가하여 성장을 주도했던 주력 업종의 수출증가율이 2005년에는 9.2%에 머물 것으로 전망
  - 수출은 통신기기 한 업종을 제외하면 실질기준으로 전 업종이 한 자리 수 증가율 내지 감소하는 것으로 전망되고, 달러 금액기준으로도 조선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통신기기 등만이 두 자리 수 증가를 보일 것으로 예상
  - 2003년과 2004년 2년간 매우 높은 수출증가율을 기록한 영향과 더불어 주요 수출대상국의 성장세 둔화, 중국 경제의 긴축, 중국의 경쟁력 강화, 급격한 환율하락 등이 수출증가세 둔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.
  - 특히 섬유는 2005년에 미국, EU, 캐나다 등의 쿼터 폐지로 수출이 감소되겠고, 제품별 수급불균형으로 인해 철강 수출도 올해와 비슷한 수준에 머물 것으로 전망
  - 그 동안 높은 증가세를 보여 왔던 반도체수출도 일본 업체들의 본격생산에 따라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이 심화되면서 증가세가 크게 둔화
  - 둔화되기는 하겠지만 2005년에도 자동차, 일반기계, 석유화학, IT 제조업 등을 중심으로 수출증가세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제품의 품질수준 향상, 국내기업 진출 국가를 중심으로 한 부품 및 설비수출 확대 등이 예상되기 때문임.
- 한편, 내수는 자동차,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내구소비재를 중심으로 다소 회복되는 양상을 띠는 것이나, 수출증가세 둔화를 상쇄할 정도로 크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
  - 2004년 자동차 내수는 외환위기시기인 1998년을 제외하면 1991년 이후 최저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됨에 따라 2005년에는 다른 여건변화가 없더라도 잠재수요의 일부 실현에 의해 6%의 정도의 내수 증가는 가능할 것으로 예상

- 제품가격의 지속적인 하락, 신제품의 출시, 위성 DMB 등 디지털 방송의 본격화에 따라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 등 IT 내구소비재의 내수는 2004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기대
- 반도체의 내수는 가격하락으로 금액기준으로는 소폭 증가하지만 물량기준으로는 7%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디지털 카메라, MP3, 휴대폰, 디지털가전 등 반도체 응용분야의 국내 수요증가에 기인
- 한편, 자본재 및 소재산업인 일반기계, 철강, 석유화학 등의 내수는 국내 산업생산이 크게 개선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기 힘들 것으로 예상
- 수출증가율은 크게 낮아지는 가운데 내수가 큰 폭으로 개선되지 않아 2005년 주력산업의 생산증가율은 2004년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

#### □ 내년에도 IT제조업은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
- 2004년에 비해 생산증가율이 크게 낮아지기는 하지만 가전, 통신기기, 컴퓨터, 반도체 등 IT제조업의 생산증가율이 5%를 상회할 전망이고, 특히 통신기기는 15.1%의 비교적 높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
- 컴퓨터, 가전, 반도체 등의 생산증가는 수출증가율이 크게 둔화되지만, 내수증가율이 비교적 높은데 기인하며, 통신기기의 생산증가는 내수와 수출이 동시에 높은 증가세를 기록하기 때문
- 조선은 현재의 수주상황과 건조일정을 감안해 볼 때 2004년보다 증가율이 크게 둔화되겠지만, 7% 이상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
- 한편, 자동차나 일반기계의 경우 내수는 회복되지만, 수출증가세가 둔화되어 생산증가율은 2004년보다 낮은 5% 미만에 머물 것으로 예상

- 철강, 석유화학 등 소재산업의 경우 수출증가세 둔화, 내수부진 등으로 2005년은 2% 내외의 생산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고, 섬유산업은 국내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

#### □ 일부 소재산업을 제외하면 원화절상으로 대부분 채산성 악화 우려

- 원화절상 및 가격하락 등으로 대부분의 업종에서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것으로 예상
  - 원화절상에도 불구하고 국제경쟁이 치열한 제품에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달러표시 제품가격을 인상하기 힘들기 때문에 결국 기업의 채산성 악화로 귀결됨.
  - 특히, IT제조업의 제품들은 지속적으로 국제가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원화절상은 채산성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임.
- 한편, 철강 및 석유화학은 제철원료나 원유를 해외에서 거의 전량 구매하므로 원화표시 수입단가 하락에 따라 채산성이 개선될 수도 있음.
  - IT제조업 중 수입부품의 사용비중이 높은 품목도 채산성 악화가 크게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

#### □ 연구개발분야를 중심으로 투자 소폭 회복 기대

- 대부분의 업종에서 생산능력 확대를 위한 설비투자는 국내에서 크게 증가시킬 가능성이 없음.
  - 자동차, 석유화학, 섬유, 통신기기, 가전, 컴퓨터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고 있으나, 국내의 생산능력 확충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
  - 반도체의 경우 해외투자를 확대하는 것과 동시에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12“라인 투자 확대 기대
  - 자동차산업에서도 GM대우나 르노삼성, 상해기차에 인수된 쌍용 등 외국인투자업체들에 의해 부분적인 투자확대 기대

- 조선의 경우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도크건조시설 대신에 육상 건조를 위한 투자를 일부 확대
- 차별화, 고부가가치 신제품개발이나 자동화, 에너지절약, 환경, 합리화 등과 관련된 투자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
- 통신기기의 경우 신규서비스개통에 따른 투자가 예상됨.

#### □ 기술개발 지원 등 산업기반 강화 정책이 필요

- 전반적인 성장세 둔화 및 채산성 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정책은 장기적인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기술개발에 중점을 두는 것이 중요
  - 최근 수출급증은 기업과 정부의 꾸준한 기술 품질개선 노력 및 지원에 기인하는 것임.
  - 특히 부품 소재분야의 기술개발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, 기술 및 품질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고급인력의 육성이 시급
- 중국 등과의 통상마찰이 심한 석유화학, 섬유 등은 반덤핑제소 등과 같은 외국의 수입규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긴요
- 석유화학과 섬유업계는 시급한 과제인 구조조정 비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정책 지원이 시급
  - 저임금 노동력을 기반으로 생산하는 섬유업체의 경우 개성공단에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
- 조선이나 철강 등은 원자재의 안정적 조달과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

### 3. 업종별 전망 요약

#### < 자동차 >

- 2005년 자동차 내수는 경기회복 둔화에도 불구하고 2년 연속 내수 하락에 따른 기술적 반등으로 전년대비 5.9% 상승한 11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
- 수출은 2004년에 비해 여건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이나 우리나라 자동차산업의 전반적인 경쟁력 강화와 해외시장의 신모델 출시 등으로 전년대비 8.5%(자동차부품 포함) 증가한 346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
- 생산은 수출증가 지속과 내수의 소폭증가로 전년대비 4.9% 증가한 356만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

#### < 조선 >

- 2005년의 선박 수주는 발주규모가 다소 줄면서 상대적으로 수주물량은 감소할 전망
- 한편 생산 및 수출은 그동안 수주한 선박의 건조일정에 따라 전년보다 더 증가할 전망
  - 또한 선가 상승의 반영, 고부가가치선박의 건조 증가로 금액기준 증가율은 물량기준을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
  - 2005년의 조선산업 생산 및 수출은 금액기준으로 전년대비 12.5% 증가한 약 153억 달러로 추정됨.

#### < 일반기계 >

- 내수는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주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조선산업, 수도권 투자규제 완화로 투자확대가 기대되는 반도체산업 등의 수요산업의 호조로 전년대비 6.6%의 건실한 증가세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

- 수출은 중동지역 수출 확대, 중국 및 인도 등지의 해외 현지투자기업의 설비투자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연간기준으로는 17.5%증가율을 시현하여 수출액은 약 234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
- 수입은 반도체산업의 설비투자 확대에 따라 국산개발이 미흡한 반도체장비 등을 중심으로 15.1%의 수입증가세 전망

#### < 철강 >

- 건축경기 침체로 봉 형강류 소비는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자동차, 조선, 일반기계 등 주요 철강소비산업의 국내생산이 증가할 것으로 보여 판재류 중심 철강 내수는 다소 늘어날 전망
  - INI 당진공장 열연 설비가동, 포스코의 미니밀 2호기 재가동 등으로 생산은 조강 기준 4.0%, 철강재 기준으로는 2.4% 증가 예상
- 국내생산 증가를 반영하여 수출은 2004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지만 수입은 700만톤 수준으로 줄어 전년대비 4.3% 감소 전망
  - 중후판 등의 일부 제품은 수입이 계속 늘어나겠지만 철근, 형강의 수입감소폭이 커 전체 수입량은 감소 예상

#### < 석유화학 >

- 2005년 중 내수는 하반기부터 회복세가 가시화되면서 3대 유도품 물량기준으로 전년대비 1.2% 증가한 1,015만 톤을 기록할 전망
- 수출은 석유화학 수급불균형 및 중국 수입수요 지속 등 긍정적 요인 우위로 2005년 3대 유도품 물량기준 3.4%, 총수출금액기준 14.1% 증가 전망
- 3대 유도품 기준, 2005년 중 생산은 다운스트림 부문의 설비확충 및 해외생산비중 증가로 전년대비 1.8% 증가된 1,775만 톤을 기록할 전망
- 하반기를 중심으로 한 내수 회복, 전방산업으로부터의 수요 증가, 수출증가세 지속, 수입단가 하락 등으로 말미암아 2005년 3대 유

도품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7.9%, 금액기준으로 14.9% 증가 전망

#### < 가전 >

- 내수는 업체의 적극적인 판매촉진 전략, 품질수준의 향상과 가격 하락, 특소세 폐지, 디지털 영상기기와 웰빙 가전 판매 확대 등으로 5%대로 회복될 전망이다.
- 수출은 미국과 일본 등 세계경기 둔화로 디지털 기기 수요가 둔화되고, 한일간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한 가격인하 전략과 생산 증가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어 달러화 기준 7%대로 증가율이 낮아질 전망이다.
- 생산은 수출이 둔화되고 내수가 이를 보전할 정도로 회복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2004년의 절반 수준인 3%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.
- 수입은 디지털 카메라 등 일본산 제품에 대한 국내 소비자의 높은 선호도와 원화절상으로 중국산 저가제품의 수입 증가에 따라 달러화 기준으로 수출 증가율을 상회하는 8%대로 증가할 전망이다.

#### < 통신기기 >

- 그 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인 이동전화기의 세계시장이 다소 둔화되기는 하지만 여전히 8~9% 정도의 성장률을 보이는 가운데, 첨단 제품으로의 대체수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.
  - 이에 국내업체들은 첨단제품 중심의 수출전략과 영국 등 EU지역으로의 수출지역 다변화를 통해 2005년에도 성장세를 지속할 것임.
- 내수시장은 신제품으로의 대체수요와 신규서비스 도입에 따른 투자가 예상되고 있어, 2004년에 비해 다소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임.
- 이처럼 수출과 내수에서 성장세가 이어지면서 생산 역시 전년대비 11% 이상 증가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임.
  - 그러나 수출시장에서는 중국업체의 경쟁력제고, 선진업체의 견제,

내수시장에서는 통신사업자들의 투자여부 등이 성장 정도를 좌우할 것임.

#### < 컴퓨터 >

- 보급률이 한계수준에 도달한데다 내구소비재여서 경기에 민감한 영향을 받는 산업적 특성상 교체수요 발생을 촉진할 수 있는 특수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한 기본적으로 내수확대는 기대하기 어려움.
  - 생산은 수출증가 둔화로 낮은 수준의 증가가 예상되며, 가격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해외생산 물량을 계속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국내생산은 회복되기 어려울 전망이다.
- 수출증가는 크게 둔화될 것이며 수입은 대체로 현상 유지할 것임.
  - 세계 PC 수요는 전통적인 수출시장 외에 인도 등 신흥국가들의 컴퓨터 수요증대가 예상되지만 원화절상, 가격경쟁력 약화, 경쟁심화 등의 요인외에 수출가격의 하락도 불가피할 것임.
  - 반면 수입은 가격경쟁력 열세로 증가가 불가피하며, 중국산 부품을 포함하여 한국기업이 현지생산한 모니터 등 역수입 제품도 점차 증가할 것임.

#### < 반도체 >

- 2005년 세계 반도체시장은 우리의 주력제품인 메모리 시장규모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우리의 수출은 소폭 증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됨.
- 공급적 측면에서는 메모리업체들의 12"라인 본격 가동화로 생산능력이 급속히 증가됨에 따라 수급여건이 올해보다 크게 악화될 것으로 예상됨. 이에 따라 D램과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은 공급과잉으로 급격한 가격하락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됨.
- 2005년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은 전년대비 3.6% 증가한 277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. 비록 수요시장 증가세는 둔화되고 있지만, 우리나라는 메모리의 경쟁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수출 확대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. 다만 가격이 급락하고 있으므로 원

화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측됨.

- 내수는 반도체 자체가 중간재이기 때문에 국내 휴대폰, 디지털가전 등 응용제품업계의 수요확대로 견조한 성장을 보일 것임. 다만 내수용은 대부분 비메모리이므로 해외에서 수입에 의존해야 함.

<표 1> 주요 기존 주력산업의 수급 전망(전년 동기비 증가율)

|       |     | 2003  | 2004  |       |       | 2005 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|     |       | 상반기   | 하반기   | 연간    |       |
| 자 동 차 | 생 산 | 1.0   | 1.8   | 11.9  | 6.6   | 4.9   |
|       | 수 입 | 19.6  | 24.1  | 16.0  | 19.8  | 17.5  |
|       | 내 수 | -17.5 | -22.8 | -10.0 | -17.4 | 5.9   |
|       | 수 출 | 20.2  | 31.6  | 23.7  | 27.4  | 4.5   |
| 조 선   | 생 산 | 7.4   | 44.2  | 4.7   | 28.6  | 7.5   |
|       | 수 입 | -5.6  | 50.7  | -40.5 | 2.3   | -17.2 |
|       | 내 수 | -5.5  | 50.9  | -40.3 | 2.9   | -18.2 |
|       | 수 출 | 7.4   | 44.1  | 4.6   | 28.5  | 7.6   |
| 일반기계  | 생 산 | 4.8   | 5.5   | 2.3   | 4.8   | 4.7   |
|       | 수 입 | 12.3  | 17.5  | 17.2  | 17.3  | 2.7   |
|       | 내 수 | 2.5   | 3.6   | 3.5   | 4.3   | 4.0   |
|       | 수 출 | 16.3  | 24.1  | 23.9  | 24.0  | 6.8   |
| 철 강   | 생 산 | 3.1   | 3.1   | -0.9  | 1.1   | 2.4   |
|       | 수 입 | 27.6  | 35.7  | -1.6  | 16.7  | -4.3  |
|       | 내 수 | 3.8   | 5.0   | -1.0  | 2.0   | 1.5   |
|       | 수 출 | 10.1  | 11.6  | 2.1   | 6.6   | 0.3   |
| 석유화학  | 생 산 | 3.8   | 6.5   | 1.9   | 4.2   | 1.8   |
|       | 수 입 | -13.5 | -14.7 | 2.6   | -6.2  | 7.9   |
|       | 내 수 | -1.8  | -2.7  | 0.1   | -1.3  | 1.2   |
|       | 수 출 | 8.5   | 16.1  | 4.3   | 9.8   | 3.4   |
| 섬 유   | 생 산 | -3.2  | -9.0  | -12.0 | -10.5 | -6.5  |
|       | 수 입 | -14.9 | 0.5   | -2.0  | -0.7  | -3.5  |
|       | 내 수 | -15.4 | -13.6 | -7.1  | -10.7 | -5.2  |
|       | 수 출 | 10.2  | 1.8   | -13.5 | -6.3  | -6.7  |

자료 : 산업연구원, 2004. 12.

주 : 모두 실질기준임. 자동차, 철강, 석유화학(3대 유도품), 섬유(섬유사) 등은 물량증감률이고, 조선, 일반기계는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.

<표 2> IT제조업의 수급 전망(전년 동기비 증가율)

|       |     | 2003 | 2004 |      |      | 2005 |
|-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-|
|       |     |      | 상반기  | 하반기  | 연간   |      |
| 가 전   | 생 산 | 6.5  | 18.3 | 4.9  | 11.2 | 5.5  |
|       | 수 입 | 13.6 | 19.0 | -1.8 | 8.5  | 2.2  |
|       | 내 수 | 1.9  | 9.9  | -7.0 | 1.0  | 8.0  |
|       | 수 출 | 8.4  | 24.9 | 22.8 | 23.6 | 2.4  |
| 통신기기  | 생 산 | 26.6 | 33.8 | 29.5 | 31.5 | 15.1 |
|       | 수 입 | 4.2  | 21.5 | 6.2  | 12.6 | 3.3  |
|       | 내 수 | 7.0  | 7.4  | 15.5 | 11.4 | 16.0 |
|       | 수 출 | 40.2 | 54.5 | 41.3 | 46.1 | 18.0 |
| 컴 퓨 터 | 생 산 | 22.9 | 27.0 | 11.0 | 19.0 | 10.5 |
|       | 수 입 | 2.4  | 9.9  | 15.3 | 12.6 | 6.1  |
|       | 내 수 | 1.4  | -9.5 | 31.7 | 7.9  | 12.2 |
|       | 수 출 | 16.8 | 40.5 | -2.8 | 15.8 | 2.0  |
| 반 도 체 | 생 산 | 48.1 | 25.3 | 13.1 | 18.3 | 7.2  |
|       | 수 입 | 24.3 | 16.7 | 4.6  | 10.2 | -0.2 |
|       | 내 수 | 38.8 | 10.1 | 3.9  | 6.9  | 7.6  |
|       | 수 출 | 23.6 | 40.6 | 15.0 | 25.1 | 1.7  |

자료 : 산업연구원, 2004. 12.

주 : 모두 실질기준임. 명목금액증감률에서 가격증감률을 차감한 것임.

<표 3> 주요 산업별 생산 전망

|                 | 2003             | 200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05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상반기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자 동 차<br>(천 대)  | 3,178<br>(1.0)   | 1,675<br>(1.8)   | 1,713<br>(11.9)  | 3,388<br>(6.6)   | 3,556<br>(4.9)   |
| 조 선<br>(10억원)   | 13,517<br>(-0.5) | 9,955<br>(33.2)  | 5,812<br>(-4.0)  | 15,700<br>(16.2) | 16,371<br>(4.3)  |
| 일반기계<br>(10억원)  | 52,130<br>(5.3)  | 28,053<br>(7.9)  | 28,508<br>(9.1)  | 56,561<br>(8.5)  | 60,800<br>(7.5)  |
| 철 강<br>(천 톤)    | 53,264<br>(3.1)  | 27,168<br>(3.1)  | 26,665<br>(-0.9) | 53,833<br>(1.1)  | 55,100<br>(2.4)  |
| 석유화학<br>(천 톤)   | 16,738<br>(3.8)  | 8,643<br>(6.5)   | 8,790<br>(1.9)   | 17,433<br>(4.2)  | 17,750<br>(1.8)  |
| 섬 유<br>(천 톤)    | 2,629<br>(-3.2)  | 1,214<br>(-9.0)  | 1,140<br>(-12.0) | 2,354<br>(-10.5) | 2,201<br>(-6.5)  |
| 가 전<br>(10억원)   | 32,034<br>(2.0)  | 17,150<br>(13.9) | 17,300<br>(1.9)  | 34,450<br>(7.5)  | 35,500<br>(3.0)  |
| 통신기기<br>(10억원)  | 36,653<br>(15.1) | 21,595<br>(25.6) | 24,273<br>(24.7) | 45,868<br>(25.1) | 50,447<br>(10.0) |
| 컴 퓨 터<br>(10억원) | 22,967<br>(0.5)  | 13,083<br>(14.4) | 11,949<br>(3.6)  | 25,032<br>(9.0)  | 25,557<br>(2.1)  |
| 반 도 체<br>(10억원) | 37,242<br>(21.4) | 22,538<br>(33.4) | 22,542<br>(10.8) | 45,080<br>(21.0) | 45,210<br>(0.3)  |

주 : 1) ( )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.

3)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

<표 4> 주요 산업별 수입 전망

단위 : 백만 달러

|       | 2003             | 200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05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상반기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자 동 차 | 3,624<br>(17.9)  | 2,043<br>(11.6)  | 1,971<br>(9.9)   | 4,014<br>(10.8)  | 4,452<br>(10.9)  |
| 조 선   | 987<br>(-2.6)    | 748<br>(60.9)    | 412<br>(-11.2)   | 1,160<br>(17.5)  | 1,180<br>(1.7)   |
| 일반기계  | 15,620<br>(24.7) | 9,611<br>(27.0)  | 9,929<br>(23.3)  | 19,540<br>(25.1) | 22,491<br>(15.1) |
| 철 강   | 9,401<br>(30.7)  | 7,323<br>(65.2)  | 8,009<br>(61.2)  | 15,332<br>(63.1) | 14,739<br>(-3.9) |
| 석유화학  | 5,822<br>(22.7)  | 3,572<br>(24.6)  | 4,220<br>(42.8)  | 7,792<br>(33.8)  | 8,950<br>(14.9)  |
| 섬 유   | 5,897<br>(3.7)   | 2,971<br>(11.5)  | 3,382<br>(4.6)   | 6,353<br>(7.7)   | 6,815<br>(7.2)   |
| 가 전   | 3,497<br>(16.3)  | 1,997<br>(21.0)  | 2,025<br>(9.7)   | 4,022<br>(15.0)  | 4,350<br>(8.2)   |
| 통신기기  | 3,340<br>(8.5)   | 1,842<br>(28.2)  | 2,135<br>(12.2)  | 3,977<br>(19.1)  | 4,479<br>(12.6)  |
| 컴 퓨 터 | 5,672<br>(-0.2)  | 3,060<br>(10.5)  | 3,281<br>(13.0)  | 6,341<br>(11.8)  | 7,039<br>(11.0)  |
| 반 도 체 | 21,328<br>(22.0) | 11,724<br>(17.8) | 12,156<br>(6.9)  | 23,880<br>(12.0) | 25,320<br>(6.0)  |
| 합 계   | 75,188<br>(18.4) | 44,891<br>(26.0) | 47,520<br>(20.3) | 92,411<br>(23.0) | 99,815<br>(8.0)  |

주 : 1) ( )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부품포함,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석유화학 (MTI코드21), 섬유는 섬유사, 섬유제품, 의류기준임.

<표 5> 주요 산업별 내수 전망

|                 | 2003              | 200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2005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상반기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자 동 차<br>(천 대)  | 1,324<br>(-17.5)  | 586<br>(-22.8)   | 508<br>(-10.0)   | 1,094<br>(-17.4) | 1,159<br>(5.9)   |
| 조 선<br>(10억원)   | 1,184<br>(-7.1)   | 878<br>(57.5)    | 478<br>(-25.4)   | 1,349<br>(13.9)  | 1,259<br>(-6.7)  |
| 일반기계<br>(10억원)  | 52,420<br>(5.1)   | 28,102<br>(7.3)  | 28,030<br>(6.8)  | 56,132<br>(7.3)  | 59,848<br>(6.6)  |
| 철 강<br>(천 톤)    | 45,365<br>(3.8)   | 23,816<br>(5.0)  | 22,450<br>(-1.0) | 46,266<br>(2.0)  | 46,953<br>(1.5)  |
| 석유화학<br>(천 톤)   | 10,170<br>(-1.8)  | 4,953<br>(-2.7)  | 5,080<br>(0.1)   | 10,033<br>(-1.3) | 10,150<br>(1.2)  |
| 섬 유<br>(천 톤)    | 1,773<br>(-15.4)  | 829<br>(-13.6)   | 755<br>(-7.1)    | 1,584<br>(-10.7) | 1,501<br>(-5.2)  |
| 가 전<br>(10억원)   | 21,190<br>(-2.3)  | 10,437<br>(6.1)  | 10,480<br>(-7.7) | 20,918<br>(-1.3) | 22,081<br>(5.6)  |
| 통신기기<br>(10억원)  | 17,512<br>(-2.1)  | 8,970<br>(1.8)   | 9,8095<br>(12.1) | 18,734<br>(7.0)  | 20,928<br>(11.7) |
| 컴 퓨 터<br>(10억원) | 11,877<br>(-13.7) | 5,806<br>(-16.7) | 6,130<br>(24.3)  | 11,960<br>(0.7)  | 12,685<br>(6.5)  |
| 반 도 체<br>(10억원) | 39,378<br>(24.1)  | 21,198<br>(12.1) | 20,582<br>(0.6)  | 41,780<br>(6.1)  | 42,730<br>(2.3)  |

주 : 1) ( )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완성차, 철강은 철강재, 석유화학은 3대 유도품, 섬유는 섬유사 기준.

3) 금액은 명목금액 기준

<표 6> 주요 산업별 수출 전망

단위 : 백만 달러

|       | 2003              | 2004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005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상반기              | 하반기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 자 동 차 | 23,346<br>(33.5)  | 15,053<br>(41.9) | 16,888<br>(32.6)  | 31,941<br>(36.8)  | 34,643<br>(8.5)  |
| 조 선   | 11,334<br>(4.3)   | 8,526<br>(36.2)  | 5,124<br>(1.0)    | 13,650<br>(20.4)  | 15,370<br>(12.6) |
| 일반기계  | 15,377<br>(23.0)  | 9,568<br>(29.0)  | 10,345<br>(30.0)  | 19,913<br>(29.5)  | 23,398<br>(17.5) |
| 철 강   | 9,280<br>(31.4)   | 6,096<br>(40.9)  | 7,153<br>(44.4)   | 13,249<br>(42.8)  | 13,350<br>(0.8)  |
| 석유화학  | 11,917<br>(28.6)  | 7,417<br>(32.5)  | 9,320<br>(47.5)   | 16,737<br>(40.4)  | 19,100<br>(14.1) |
| 섬 유   | 15,253<br>(-2.7)  | 7,477<br>(2.5)   | 7,799<br>(-2.0)   | 15,276<br>(0.1)   | 14,099<br>(-7.7) |
| 가 전   | 12,610<br>(17.2)  | 7,749<br>(29.6)  | 8,050<br>(21.4)   | 15,799<br>(25.3)  | 16,950<br>(7.3)  |
| 통신기기  | 19,411<br>(36.4)  | 12,659<br>(50.8) | 15,016<br>(36.3)  | 27,675<br>(42.6)  | 33,000<br>(19.2) |
| 컴 퓨 터 | 14,977<br>(15.7)  | 9,296<br>(43.7)  | 8,422<br>(-1.0)   | 17,718<br>(18.3)  | 19,298<br>(8.9)  |
| 반 도 체 | 19,535<br>(17.5)  | 12,872<br>(55.8) | 13,888<br>(23.2)  | 26,760<br>(37.0)  | 27,720<br>(3.6)  |
| 합 계   | 153,040<br>(20.1) | 96,713<br>(37.0) | 102,005<br>(23.8) | 198,718<br>(30.0) | 216,928<br>(9.2) |

주 : 1) ( ) 안은 전년 동기비 증가율.

2) 자동차는 부품포함, 석유화학은 산자부 수출입통계분류  
석유화학(MTI코드21), 섬유는 섬유사, 섬유제품, 의류기준임.